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 : 귀환 이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최정애 ■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에서는 이주민 수 증가와 함께 이주민 통합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유권자는 독일 인구 전체의 9%, 630여만 명에 이른다. 이주민 2,3세대가 사회 중심으로 나오며 유권자로서 이주민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민 이슈를 향후 주력 과제로 내세운 정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논문은 투표행태의 이론적 흐름에서 '정당 일체감'을 기반으로 정당 선호를 해석하는 인지학적 연구의 질적 분석을 토대로 하였다. 연구 사례로는 독일 이주민 사회 통합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구 소련계 귀환 이주민(Aussiedler)을 선정하였다. 2010년 이전에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전' 과 '차별화'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하였음을 논하고, 2010년 중반 이후 변화한 사회에서는 '접촉' 요인이 이주민 유권자 정당 선호 연구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밝힌다. 요컨대 이 논문은 독일 정치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이주민의 정당 선호를 살핀다. 이를 통해 이주민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여는 물론이고, 이주민과의 상생이라는 현대 사회의 정치적 과제를 의미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 독일 정치, 귀환 이주민, 정당 일체감

*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이주 배경을 가진 독일 유권자의 정당 선호: 이전, 차별화, 접촉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2020)"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힘.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E-mail: jeongae@kdi.re.kr)

I. 서 론

독일의 관심이 이주민에 집중된 것은 오랜 일이 아니다. 식민국가 통치 등 역사적 이유로 인종적 다양성을 확보한 이웃나라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전통적인 게르만 인종의 거주 지역이었으며 특히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외국인 이주가 많지 않았다. 독일에 외국인 유입수가 가장 많았던 첫 번째 시기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때였다. 독일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모로코, 튀니지 등의 국가와 노동자 협정을 맺으며 외국인 체류를 반겼다. 초청 노동자들이 노동 계약 만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춘 독일에 계속 정착하기를 원하면서, 독일에 정주하는 외국인 수가 대폭 상향되었다. 이에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 수는 1951년 50만 명, 1973년 400만 명에서 2019년 현재 1,091만 명으로 증가했다. 독일 내 이주 배경을 가진 유권자는 2019년 하반기 기준 630여만 명에 이른다.

독일 정부는 1990년 말 이주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외국인법(AuslG: Ausländergesetz)을 개정했다. 1999년 귀환 이주민 및 숙지주의 관련안이 개편¹⁾되었고, 2005년 개정에는 노동이주, 난민 및 망명, 이주민 사회통합 문제가 포괄적으로 다루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뚜렷하게 집단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5년 대량 유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터키계 초청 이주민(Gastarbeiter), 과거 소비에트 연합에서 독일로 재이주한 귀환 이주민(Aussiedler)은 독일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색을 보유한 집단이다. 독일 내 이주민 정당 선호를 연구한 학자들에게도 이 두 집단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었다.

이 논문은 과거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분석 방법만으로 2010년 중반 이후 크게 변화한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이주민 집단 '내부'에서 정당 선호 영향 요인을 찾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이주민 집단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당 선호에 큰 변화를 보인 귀환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이주민 정당 선호의 외적 변화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1) 2000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출생 시 부모 중 한 명이 8년 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을 경우 독일에 무제한 거주할 권리를 가짐(§ 4 Abs. 3 StAG).

연구 방법으로는 분석 대상인 귀환 이주민 집단의 역사 및 문화, 집단적 성격을 각종 1차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정부 및 연구기관의 관련 연구자와 현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들이 제공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 결과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버나드 베렐슨(Bernard Berelson)을 위시한 인지심리학 이론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문적 체계성을 견고히 하였다.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의 절대 수도 많아졌지만, 노동 수요 증가, 국제 결혼 증가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이주민 영향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보다 한발 앞서 이주민 증가와 정책 차원의 변화를 겪은 독일의 정치 사회적 모습을 분석하는 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사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지금 시기에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II. 이주 유권자 정당 선호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정당 선호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발해진 시기는 1940년대로,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의 라자스펠드(Paul F. Lazarsfeld)와 베렐슨(Bernard Berelson) 교수가 미국인 투표 행태를 분석한 연구물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을 발표한 후였다. 베렐슨은 이 연구 이후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계속 살피며, 사회집단이 유권자 투표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꾸준히 주장했다. 베렐슨이 활동한 1950-60년대는 정치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개인과 사회를 둘러싼 환경이 정치 체계에 영향을 주고 정치 체계가 다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구조 기능주의 이론이 활발한 때였다 (Easton 1964).

구조 기능주의 이론은 정당 선호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발전 시켰다. 첫 번째로 '개인'의 정치적 태도나 가치관에 주목하는 연구는 캠벨(Campbell 1960)이 '정당 일체감'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며 자리 잡았다. 캠벨은 정당 일체감이 개인의 정치적 선호를 구성하며, 사회 역시 이런 일체감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당 선호를 유지하는 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흐름의 연구에서는 정당 일체감을 '한 개인이 성장하며 정치사회화 과정을 습득해가는 결과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따라서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전용주 외 2007). 두 번째는 개인보다 '사회집단'에 주목한 연구의 흐름으로,

캠벨의 영향을 받은 후세대 연구자들이 캠벨의 연구를 확장하여 사회집단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집중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제도'적 차원에 대한 연구로, 순수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선거제도가 투표행태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Farrell 1977).

베를슨은 이 중 두 번째인 사회집단을 강조한 학자였으며, 이주민을 다룬 상당수 선행 연구들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데 동의했다(Strijbis 2014). 한편 이주민 유권자의 정당 선호 연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당 일체감이 형성 되는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띠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내외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주한 국가에서 이주민이 소속된 사회 집단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선행 연구가 주목한 요인이 바로 '이전(transfer)'과 '차별(differentiation)' 요인이었다. 이주민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이념 등 세대에서 세대로 '이전'된 정치 성향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베를슨이 주장한 영향 요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전'은 베를슨의 용어로 '친숙한 관계에 따른 세대, 가족 간에 이전되는 정치 성향'으로, '차별화'는 '그룹 컨텍스트(group context of voting behavior)'로 각각 소개되었다(Berelson 1954). 베를슨은 이외에도 한 가지 영향 요인을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동과학자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로서 주장한 '외부와의 접촉'이었다. 베를슨은 이것을 '유대(circle of friends/co-worker)'로 소개하며 대중 매체의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베를슨이 주장한 세 가지 정당 선호 영향 요인을 토대로, 우리는 독일 이주민 정당 선호를 다룬 선행 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을 정교화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전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정당 일체감이 세대 이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괴레스(Goerres 2018b)는 초청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 이주라는 테마가 이전 요인을 작동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귀환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기민련에 대한 정당 일체감이 2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았다. 초청 이주민을 다루는 연구들은 꾸준히 노동 이주와 사민당의 관계에 대해 다루어 왔으며, 노동자 직군이 대물림 되는 성향이 있는 경우 이전 요인의 중요성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Snitil 2012; Müssig und Worbs 2012). 앞선 연구들은 시대 배경을 간과하거나 통제시킴으로써 이전 요인의 중요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1세대 이주민과는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전 요인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정당 일체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집중적으로 논한다. 이 경우 한 이주민 집단의 정당 선호는 현지인, 다른 이주민 집단들의 그것과 차별성을 보인다고 설명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요인에 주목했는데, 차별성은 독일 1세대 이주민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며 이슈 중심으로 차별 의식이 만들어지는 경향을 보였다(Goerres 2018a; Ireland 2012; Wüst 2004). 귀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별화 요인을 활용해 정당 선호를 설명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괴레스(Goerres)는 러시아계 귀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독일에서 보낸 시간과 민족적 정체성 등 '차이'의 요인과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이하 대안당)' 지지는 상관성이 없는 반면, 독일 사회에서 '차별'을 느끼는 경우 대안당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으로 설명할 귀환 이주민의 독일 내 입지와도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세 번째로 접촉 요인을 다룬 연구 사례는 다른 두 가지 요인을 통한 분석보다 적은데, 이는 내부 요인이 기존 선행 연구들의 주요 관점으로 굳혀져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블래테 외(Blätte et al. 2018)는 터키계 이주민들이 대터키 외교 정책, 터키의 EU 가입문제, 유럽연합과 터키 관계에 있어 사민당과 총리 후보자 마틴 슈츠(Martin Schulz)의 불충분한 답변에 불만을 가졌다는 점에 집중했다. 이것이 2017년 총선 결과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접촉 요인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탈국경적 행위의 증대, 이주민·난민 문제의 대두, 이주민 경계의 증대, 교통 발달,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등은 접촉 요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주민 정당 선호가 과거 거주국의 문제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출신국-거주국 관계 등 외부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이다. 특히 2015년 난민 대거 이주, 2016년 브렉시트 투표 등 이주민과 직결된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이주민들은 내부적 결속 뿐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앞의 설명을 바탕으로 영향 요인 분석의 기준을 다음 <표 1>와 같이 세워 볼 수 있다. '이전', '차별화', '접촉'의 세 가지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 연구들이 중요하게 여겼거나 측정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항을 분류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 이주민 정당 선호의 영향요인

분류	요인	측정 기준
내부 요인	이전	정당 선호에 있어 세대 간 의견 일치, 세대별 정당에 대한 연대성
	차별화	차별 인식에 대한 정당의 대응, 관습적 차별에 대한 정당의 반응
외부 요인	접촉	내부적 접촉(모국어 미디어에서 정당에 대한 평가, 준거 집단의 활동), 외부적 접촉(출신 국가에 대한 정당의 대응)

측정 기준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전’ 요인은 내부요인의 하나이며, 많은 연구가 ‘세대 간 이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이 논문의 분석 모델에서도 정당 선호에 있어 현재 세대 간 의견이 일치 하는지, 즉 정당 선호에 있어 1세대가 2세대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세대별로 각 정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체감과 연대를 보이는지를 중점으로 이전 요인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차별화’ 요인 역시 내부요인의 하나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의해 자주 활용되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차별화 요인을 논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정당이 이주민 차별을 인식하는 정도와 이주민 이슈에 대응하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어떤 사회적 기준보다 침예하게 다뤄지는 종교적 차별성과 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차별을 인식한 이주민에 대한 정당의 대응 방식과 입장에 대해 논한다. 마지막으로 ‘접촉’ 요인은 외부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요인은 미디어 등을 통한 이주민들의 외부 접촉, 특히 출신 국가와의 관계나 외교 상황, 준거 집단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정당 선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귀환 이주민이 처한 독특한 상황에서 정당 선호 흐름을 분석하고, 제시된 측정 근거를 토대로 선행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비대면 준거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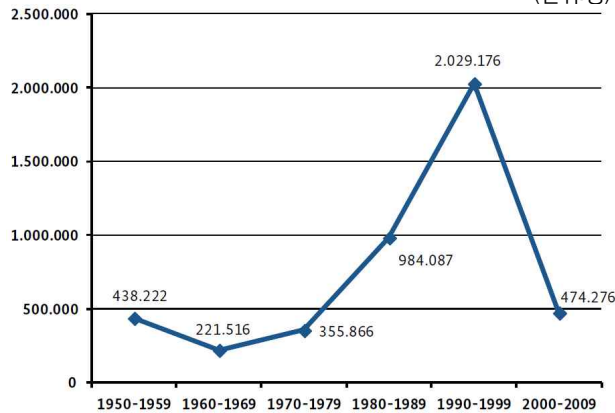
Ⅲ. 독일 내 귀환 이주민 현황과 정당 선호 추이

귀환 이주민의 선조는 수세기에 걸쳐 러시아로 대거 이주했던 독일인이었다. 독일 출생으로 러시아 황후가 된 예카테리나 2세(1762~1796년 재위)는 남편 표트르 3세의 무능한 통치 능력이 러시아인들의 반감을 사는 동안 세력을 넓혀 남편을 폐위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랐다. 예카테리나 2세는 세력을 넓히기 위해 대

외 정치를 활용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독일인에 대한 이주장려정책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주로 독일의 빈농들이 구 소련의 국가들로 들어가 노동 생산력을 보강했으며, 예카테리나 이후에도 이들에게 언어, 문화, 자치 공동체를 보장해주고 병역 징집을 면제 해주는 특혜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모스크바 북서쪽에서 지금의 카자흐스탄 서쪽에 이르는 볼가강 유역의 도시,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에 독일계 이주민의 수가 늘어났다.

한편 20세기에 들어와 독소전쟁, 2차 대전 등이 발발하면서 독일계 이주민들은 혼잡한 여건 속에서 정치적 희생을 치렀다. 스탈린은 이주 독일인들을 시베리아 노동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고, 자치권에서 독일식 이름, 언어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급기야 2차 대전 패전을 계기로 독일 영토가 축소되며 슐레지엔 및 프로이센 지역, 구 소련에 거주하던 독일인들은 대거 독일로 들어왔다 (Goerres 2018a; Stricker 1997). 독일 혈통이었던 이주민들이 역이주 해 오면서, 독일 정부 역시 이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주민에 관한 법률이 1953년 ‘연방이주법(Bundesvertriebenengesetz)’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공포되었고, 본격적으로 ‘이주하였다가 귀환된 이주민’이라는 뜻의 ‘귀환 이주민(Aussiedler)’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림 1>에서 1950년대부터 독일로 들어온 귀환 이주민 유입의 증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1950년에서 80년까지 독일로 이주한 독일 혈통의 이주민 숫자는 총 101만 5천명 정도였으며, 한 해 유입된 이주민은 2만 명에서 많을 때는 6만 명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림 1> 귀환 이주민 유입 수 (단위:명)



*출처: Bundesverwaltungsamt 자료를 토대로 구성

귀환 이주민 유입 수가 가장 많은 시기는 1990년대였다. 1982년 헬무트 콜을 수장으로 하는 기민·기사 연합 정부가 이들을 위한 귀환 장려 정책을 만든 데다, 몇 년 후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이었다.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년 동안에만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독일로 유입되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주민들은 언어, 생활습관 등 독일의 풍습과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는 독일의 혈통주의적(Jus Sanguinis)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의심으로 이어졌다. 그때까지 독일은 대다수 이민 국가에서 실시하던 동화정책의 필요성을 묵인하고, 차별을 배제시키는 정도로만 이주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였다. 1995년 선거부터는 독일에 거주하는 유럽연합 시민에게 지방 선거권을 허가했고, 독일에 거주하는 비유럽연합 시민의 선거권 논의도 시작했다. 독일은 이주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이주 문제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박채복 2016). 1990년에 발의한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AuslG)에는 1999년 국적법(StAG: Staatsangehörigkeitsgesetz)이라는 명칭을 새로이 부여했다. 2000년 초 발표된 국적법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속지주의(Jus Soli)를 인정했다.

한편 독일 혈통의 이주민들에 대한 귀화도 엄격해졌다. 1993년 이후부터는 현지에서 입국허가를 받고, 독일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독일 입국 자격을 주었다. 독일에 정착해서도 통합교육 코스(Integrationskurs)²⁾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주 및 망명자들을 위한 연방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BAMF)이 나서서 언어능력을 테스트하고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통합 정책 뿐 아니라 검열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격 미달이나 통합의 의지가 없는 귀환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경우도 생겼다.

1950년에서 1989년까지 귀환 이주민의 출신 국가를 분류해보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238만 명, 52.6%), 폴란드(144만 명, 31.9%) 루마니아(43만 명, 9.5%), 체코슬로바키아(10만 명, 2.3%), 유고슬라비아(9만 명, 2.0%), 헝가리(2만 명, 0.5%), 기타 국가(5만 명, 1.2%) 순이었다(Bundesverwaltungsamt 기준).

2019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집계한 유입 귀환 이주민의 총 수는 4,529,758명이며, 이중 투표권자는 1,683,000명이다. 이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몇 개 도

2) 이 통합 코스는 '난민 및 망명자 처리에 관한 법률'로서 연방난민법(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15조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귀환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각각 27%와 19%를 차지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과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도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는 20만여 명의 귀환 이주민이 거주중이다. 뒤따라 바이에른(Bayern)에 16%, 니더작센(Niedersachsen)에 11%가 분포한다. 구 동독 지역에는 귀환 이주민 전체의 5% 미만(124,000명) 정도만 거주한다. 귀환 이주민 5천 5백 명이 거주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포르츠하임(Pforzheim), 3만 2천명이 밀집 거주하는 니더 작센(Niedersachsen)의 클로펜부르크(Cloppenburg)는 대표적인 귀환 이주민 거주 지역이다.

귀환 이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다른 이주민 그룹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다. 비교적 좋은 학교 교육을 받고, 직업 교육 및 노동 시장에서 대우도 상대적으로 높다. BAMF 공식 문서에서 밝힌 이들의 공식 실업률은 5.7%정도이며, 연봉 수준은 '500유로 이하(2%), 500-1000유로(34.8%), 1,500-3,200유로(46.8%), 3,200-4,500유로(11.5%), 4,500유로 이상(4.8%)'이다. 직업군 별로 보면 '일반 기술 노동자(35%), 마이스터 등 전문직(21%), 사무직(36%), 자영업(5%), 공무원(3%)' 순이었다.

이들의 교육 수준과 직업 환경 역시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서 월등하다. 최종 교육 수준은 '교육미이수자(3.6%), 중등교육(34.6%), 기술학교 등 중등교육(34.6%), 고등교육 이상(27.2%)' 순이었다. 전체 이주민의 중등교육 비율 평균은 이들보다 10% 포인트 낮았다. 귀환 이주민들은 실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이주민들 보다 높은 비율로 연금을 수령했고,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개인 자산 축적률도 높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전체의 82%이며 이중 개신교 신자가 55.6% 정도였다(Baier et al. 2010).

구 소련 지역에서 독일로 돌아와 정착한 귀환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독일로 불러준 기민·기사 연합의 오랜 지지층이었다. 1990년대 귀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된 직후부터 다른 정당에 비해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귀환 이주민들은 철저히 독일식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기민·기사 연합의 비호를 받으며 견고한 지지층이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귀환 이주민 집단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은 전에 비해 낮았지만, 여전히 평균 65% 정도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차지했다.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귀환 이주민 지지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2010년 중반 부터였다. 2010년 중후반에 이루어진 정당 선호 조사에서는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40%에 가까울 정도로 감소되었고, 급기야 2017년 총선에서는 27%

까지 감소했다. <표 2>는 귀환 이주민들의 역대 정당 선호 추이를 보여준다.

<표 2>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 추이

	~1995	1995~ 2002	2000~ 2008	2016	2017	2018
CDU/CSU	71	53	65	45.2	27	40.6
SPD	18	21	24	25.6	12	15.0
FDP			3	0.7	12	7.9
Die Grüne	0	3	4	8.2	8	7.7
Die Linke			4	11.5	21	15.6
AfD	-	-	-	4.7	15	12.0
기타 정당	2	2	-	4.2	5	1.3
참고	N=93	N=62		정당선호	64	정당선호

*출처:

2016년 자료: 설문조사 대상 4,000명, 기간 2015.3-8. 설문조사 기관 Sachverstä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ür Integration und Migranten. 오차범위 ±0.05

2018년 자료: 설문조사 대상 1,438명, 기간 2017.7-2018.1 설문조사 기관 SVR-Integrationsbarometer 2018. 신뢰구간 95%, 오차범위 ±0.05

2017년의 총선 결과는 귀환 이주민들의 투표 성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2016년과 2018년의 정당선호 설문 결과보다 2017년의 실제 투표 결과는 기민·기사 연합에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2016년 대안당(AfD)과 좌파당(Die Linke)에 대한 귀환 이주민들의 지지율 상승은 그런 측면에서 놀랍고 흥미로운 결과다.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유권자의 투표 성향과 비교해보면 귀환 이주민들의 정당 선호가 극단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더 잘 비교할 수 있다. 독일 유권자들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은 1990년 43.8%, 1994년 41.4%, 1998년 35.1%, 2002년 38.5%, 2009년 33.8%, 2013년 41.5%, 2017년 32.9%이었고, 대안당 지지율은 2013년 4.7%, 2017년 12.6%였다. 좌파당은 2013년 8.6%, 2017년 9.2%였다.

대안당과 좌파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대안당 지지율의 비약적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난민·이주민 등의 사회 갈등 이슈 증가, 정당 일체감을 토대로 한 포퓰리즘 정당의 이주민 전략 등에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 감소에 대한 영향요인 변화를 세세히

살피며 대안당 지지율 상승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을 것이다. 좌파당 지지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우선 정치 이념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귀환 이주민들의 사회적 특성에서 살펴듯, 이들은 아비투어를 치르는 대신 기술 교육을 받고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은 좌파당 지지율을 높인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준거집단과의 접촉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데이터에 근거해 우리는 귀환 이주민들의 정당 선호 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귀환 이주민은 기민·기사 연합 지지자라는 기존의 선거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기보다 지속되는 상황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볼 것이다. 두 번째로, 거대 정당을 선호하는 비율이 줄었다. 비 거대 정당,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 역시 논문이 고안한 연구 모델을 통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안당의 대 이주민 집단 홍보 전략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정당 선호 영향력 분석

1. 이전 요인

이전 요인은 차별화 요인과 함께 선행 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뤄진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의 영향 요인이었다.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귀환 이주민 1세대의 정당 일체감이 후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는 논리였다. 선행연구들은 어떻게 1세대의 정당 일체감이 2세대에게 전가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대상을 분석했다. 그러나 2017년 총선 전후에 1.5세대들의 정체성 혼란, 대안당 선전 등과 함께 이러한 세대 이전 성향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이를 살피기 위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집단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한다³⁾.

3) 1세대는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 2세대는 이주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며, 1.5세대는 12세 이하에 독일로 이주해 독일에서 성장한 사람을 뜻한다(BAMF 2018). Goeres, Achim, Mayer, Sabrina J., Spies, Dennis C. 연구팀이 독일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한 2017-2018년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 면담에 참여한 500명 중 1세대는 481명, 2세대는 21명이다. 연구팀 책임자 중 Sabrina Mayer 박사와는

인터뷰 결과 우리는 1.5세대 이후 귀환 이주민들의 모호하고 복잡한 정체성과 마주하게 된다. 우선 귀환 이주민 중 1세대인 60대 이상은 구 소련 지역에서 독일로 이주하면서 기민·기사 연합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이 귀환 이주민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세대부터는 그들 스스로 구 소련에서 왔다는 인식보다 독일에서 성장한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더 이상 기민·기사 연합을 자동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표 3>은 500명 인터뷰 중 23명을 다시 면담한 결과 중에,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간 의견의 불일치와 1.5세대 이후 귀환 이주민들의 기민·기사 연합 지지에 대한 철회의 의견을 보여주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다.

<표 3> 귀환 이주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3명(20-79세, 평균 연령 27세) - 이주민 대부분이 독일 시민권자이며, 20%가 이중국적자 1세대 이주민: 60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어 독일로 이주 1.5세대 이주민: 12세 이하에 독일로 이주 	
1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생각에 러시아계 독일인들은 헬무트 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로 들어오는 경계를 열어주었으니까요. 그게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죠. (남성, 65-69세) • 대안당이 난민 정책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대응에 대한 실망감을 덜어 주고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65-69세)
1세대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 독일인들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독일인으로 사는 것도 그랬으니까요. 부정적인 방향으로요. (남성, 65-69세) • 사실 독일로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 65-69세) • (이주 전 국가에서 받아온) 자격증이나 대학 증명서 같은 것들이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에 들어와 미화원으로 일을 합니다. (여성, 60-64세) •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독일 방식으로 살아오셨고, 다른 식으로 행동하거나 동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성, 25-29세)

2019년 7월 면담을 갖고 이후 이메일로 교신하며 2년에 걸친 포커스 인터뷰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1.5 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당이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애국심이에요. 대안당의 민족주의적 프로그램이 완전히 개방되었기 때문에 귀환 이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45-49세)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 저는 러시아인으로 취급당했어요. 카자흐스탄에서는 독일인이었죠. (여성, 30-34세) • 여전히 러시아식 삶을 고수하고 있어요. (여성, 30-34세) • 독일에 들어왔으니 이제 독일인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성, 29세)
2 세대	정당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기민·기사 연합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20-24세) • 기민련을 지지했는데요,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이유도 많아졌어요. (여성, 25-29세) • 기민련이 아니라 사민당, 아니면 녹색당이나 그 어떤 정당이든 저희 입장을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성, 25-29세) •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는 전적으로 정당에 의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20-24세, 대안당 지지자) • 러시아어로 제안을 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100% 이해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고 이야기 해보겠다는 의지로 생각되고요. (여성, 20-24세)
	정체성 인식, 생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모는 헬무트 콜이 저희를 독일로 들여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스스로 겪은 일은 아니니까요. (여성, 25-29세) •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친지들은 독일로 들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죠. (여성, 25-29세) • 종교가 같다는 면에 있어 우리는 독일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여성, 25-29세)

우리는 귀환 이주민을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나누어 그들의 정당에 대한 입장과 생활 방식을 설명한 위의 <표 3>에서 두 가지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우선, 1세대와 2세대가 기존 지지 정당 기민·기사 연합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세대가 헬무트 콜과 기민련에 대해 무한의 신의를 갖고 있었다면, 2세대들은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기민련을 지지하고 있던 2세대의 경우에도 기민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며, 1세대에 비해 훨씬 냉정한 시선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 2세대가 차츰 중심 세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런 결과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점은 전 세대가 대안당에 호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당에 대한 해석은 세대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1세대는 대안당을 새로운 방식의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해석하고 있었다. 민족주의는 스스로를 ‘독일 민족’으

로 칭하던 이들 1세대 귀환 이주민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한편 2세대들은 실망한 기존 정당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안당을 선택하고 있다. 요컨대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회의감과, 이를 대신 해줄 대안으로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당이라는 변수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중반 이후 귀환 이주민 집단 내에서 대안당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환 이주민들을 세대로 나누었을 때, 각 세대의 정당에 대한 연대감은 완전히 달랐다. 1세대의 지지 정당과의 연대감은 2세대로 오며 상당히 희석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석되고 있다.

2. 차별화 요인

많은 귀환 이주민들은 지역 사회의 차별에 두려움을 갖고, 차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독일인이라는 사실을 과장해 드러내곤 한다. 이들은 터키계 이주민처럼 한 번에 구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은근한 경멸'의 눈빛을 받곤 한다고 고백한다. 독일인들이 내면적으로 자신들에 적대적일 것이라 예상하는 귀환 이주민들도 자주 만날 수 있다⁴⁾. 2016년 이후 귀환 이주민들이 느끼는 차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단연 '폴 리사 Fall Lisa 가짜 납치 사건'이었다. 2016년 1월 11일, 13살 러시아계 이주민 3세인 리사는 부모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 후에, 부모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세 명의 난민 남성에게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잡혀 갔다는 그녀의 주장에 귀환 이주민을 포함해 러시아어를 쓰는 이주민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폴 리사의 거짓말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번져 나갔다.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폴 리사를 찾자는 메시지가 오고 갔다. 구 소련계 이주민은 한데 모여 연방과 주정부에 강력한 치안을 요구하며 시위했고, 이 시위는 난민과 이주민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강력 시위로 번졌다.

당시 이주민, 난민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던 대안당은 이 사건을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 결집에 활용했다. 귀환 이주민들을 앞세운 대안당은 러시아어와 독일

4) "터키인들이 가게에 들어가서 터키어를 하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러시아어를 쓰면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차이점은 터키인은 이미 생각으로 구별하는 한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인처럼 생겼는데 러시아어를 쓴다는데 있는 거죠. 지역 사회에서 이런 말도 해요, '왜 독일인처럼 생겼는데 러시아어를 하고 그래?'" - Pfetsch(1999)의 포커스 인터뷰 결과에서 발췌

어를 혼용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 난민 반대 등의 시위를 열었다. 이 시위는 앙겔라 메르켈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로까지 번졌다(Focus 2017; Roppert 2017). 2016년 뉘른베르크 시위를 보도한 뉘른베르크 차이퉁(Nürnberger Zeitung)의 엘라 쉰들러(Ella Schindler)는 '이주민들의 불안정한 사회 경제적 위치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의 기독교적 자존심, 무슬림에 대한 혐의도 대안당 지지율을 올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폴 리사 사건 직후였던 1월 26일 첫 시위의 주요 이슈는 '정부의 안보 강화'였는데, 이때 무슬림의 비동화적 특성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무슬림 반대'를 주제로 한 시위는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3,000여명의 귀환 이주민을 끌어 모았다. 이들의 시위를 비꼬며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이주민들의 유입이 유럽 몰락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안보 강화를 자축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무슬림과 안보 위협은 대안당이 2015년부터 강력한 포퓰리즘 정당을 자처하며 캐치프레이즈화 시킨 주제였다. 이에 귀환 이주민들의 대안당 지지율이 4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자신감을 얻은 대안당은 귀환 이주민들이 모여 거주하는 집단 구역으로 직접 들어가, '대안당을 위한 러시아 독일인(Russlanddeutsche für die AfD)'과 같이 이주민에 특화된 특별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지층이 결집되자 대안당은 다음 절차로 홈페이지와 공약집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대안당의 러시아어 이주민 네트워크 및 주요 활동 소개문

1. 헬무트 콜(Helmut Kohl)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귀환된 독일인들은 수 년 동안 기민 연합을 지지해옴.
2. 그러나 범죄율 증가, 우크라이나 위기, 러시아에 대한 강경 태도, 망명 이슈에 대한 혼란 증가 등으로 사회는 위협을 받았음.
3.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독일인들(Russlanddeutsche)은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옹호 해왔으며, 잠재적인 위협 세력인 독일 이슬람교를 제재하고 독일의 이익을 위해 균형을 잡힌 국내외 정책을 지지해야 함.
4. 이 네트워크는 AfD안에 설립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님.
 - 구소련계 독일인들 사이에서 AfD 정책 아이디어, 프로그램, 아젠다 등 보급을 도움.
 - 지역별 AfD는 선거운동을 지원
 - 독일어 정치 용어가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러시아어 서비스 제공
 -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등 필요한 플랫폼에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협력 활동

*출처: Russlanddeutsche für die AfD

이런 상황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득장 대응도 정당 지지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귀환 이주민의 오랜 지지를 받았던 기민·기사 연합에게는 오래 전부터 귀환 이주민을 위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러나 이 네트워크의 활동은 대안당처럼 지속적이고 친밀하기보다, 대표를 중심으로 일회성 초청 행사를 주최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였는데, 대안당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덴-뷔르템베르크를 중심으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원한 각종 모임을 설립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안당의 거센 공략에 충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8월 말, 기민·기사 연합도 늦게나마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을 시작으로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CDU Baden-Württemberg 2017). 그러나 한발 뒤떨어진 홍보 전략의 성공 여부는 20% 가까이 떨어진 지지율이 대신 답해주고 있다.

3. 접촉 요인

대안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이주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대안당은 네트워크의 내부적 접촉, 즉 이주민 집단 내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외부적 접촉, 즉 이주민 집단 밖의 유대도 중시했다. 따라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접촉 요인을 내부 접촉, 외부 접촉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부적 접촉은 이주민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른다. 여기에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각종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의 준거 집단이 있다. 외부적 접촉은 이주민 집단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한 영향을 뜻한다. 단, 외부적 접촉은 앞의 이전, 차별화 요인에 영향을 주는 단순한 사회적 교류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주민의 생활 영역인 거주 국가와의 접촉을 벗어난 '외부', 즉 출신 국가에 대해 각 정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이주민이 받는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접촉 요인'에서의 '외부적 접촉'은 출신국-거주국의 외교 관계 등과 연관되어 있다.

우선 내부적 접촉으로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미디어'가 집단에 영향을 주어 정당 선호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독일 내에는 귀환 이주민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매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은 소규모 인터넷 방송이며, 동영상은 클립으로 만들어지거나 생방송으로 인터넷 방송 채널이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해진다. 소규모 매

체의 경우 자극성 높은 문구나 인터뷰 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눈길을 끌고, 대안당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인터뷰어도 많다. 인터뷰 주제로 '대안당이 어째서 프로파간다인가'를 놓고 토론하는 식이다.

이런 성향은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저널리스트이며 귀환 이주민인 올가 소콜로바(Olga Sokolova)는 2017년 총선 직전 귀환 이주민들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메르켈 반대 운동'이 미디어를 중심으로 번졌다고 설명한다(Bayerischer Rundfunk 2017). 사민당도 공격 받았다. 대안당 지지율이 한참 상승하던 2017년 9월, '러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 외무부 장관 및 전 사민당 대표)이 대안당을 '네오 나치' 등으로 명명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표 4>는 귀환 이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서 총선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귀환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인쇄 매체는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배달되는 신문이었으며, 대안당에 대한 기사는 사민당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심층적으로 작성되었다.

<표 4> 귀환 이주민 이용 인쇄 매체

비율 (%)	매체	독일 총선 관련 기사
47	Argumenty i Fakti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배달되는 형태	사민당: 지지율 대폭 감소 대안당: 지방의회 성공적 입성, 지지율 증가 기민련: 기사량과 의견 충돌,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
35	Semljaki 월간 발간. 독일과 러시아의 정치와 귀환 이주민 생활 정보 공유	기민련: 대안당 지지율과 대비, 귀환 이주민 생활고에 대한 기민련 대비 방안 미비
27	Russkaja Germanija, Russkij Berlin 1996년 창간 초기에는 베를린 지역 신문이었으나, 섹션을 늘려 전국 단위의 미디어가 됨.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 지면이 있음.	대안당: 대안당 성공의 의미
25	Deutsch-Russische Zeitung 바덴바덴 지역에서 출간되는 신문	주요 정당별 러시아와의 관계, 파트너십 형성 가능성 등에 대해 공략집을 토대로 분석

두 번째로 '준거 집단' 역시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내부적 접촉요인이다.

최근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이주민 준거 집단 역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동 영역을 넓혔다. 포겔장(Vogelsang)은 특히 온라인 준거 집단을 ‘미디어 디아스포라(Mediale Diaspora)’로 명명하고, 귀환 이주민 중에서도 젊은 청소년들이 미디어 준거집단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Vogelsang 2008). 워브스(Worbs 2013)도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귀환 이주민들은 높은 방어력과 경계심을 갖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준거 집단을 발달시켜왔다고 했다. 귀환 이주민 준거 집단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강한 친화력을 보이고, 네트워크 안에서 강한 인종적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친교 관계의 내적 경향(innerethnische Tendenzen im Freundschaftsnetzwerk)을 발전시키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었다(Worbs 2013). 대안당을 지지하는 한 20대 여성은 인터뷰에서, 2014년 이후 러시아와 독일(또는 유럽연합)의 관계가 급속히 냉랭해진 점이 귀환 이주민 준거 집단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민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주민·난민 문제를 대안당이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⁵⁾.

상당수의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는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다. 한 네트워크 분석 연구에서는 귀환 이주민의 네트워크가 1차 영역인 가족 및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3차 네트워크 영역인 동료(Kollegen)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낮았다(Bayerischer Rundfunk 2017, Frank 2011). 대안당은 이 네트워크를 가장 잘 활용한 정당이었으며, 대안당의 러시아인 네트워크(Russlanddeutsche für die AfD)는 이런 특성을 고안해 만들어진 준거 집단이었다. 이들은 동영상 클립을 개인 SNS나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파했고, 페이스북, 텔레그램, 왓츠앱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생성시키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특히 터키계 터키회처럼 이들을 대표해 활동할 수 있는 준거 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 모임은 이들이 친목을 다지면서 정치적 선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로 활용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접촉 요인은 앞에서 살핀 논리에 의거해 출신국-거주국의 관계에 따른 접촉이 정당 선호에 주는 요인을 이룬다. 2013~2017년 총선 시기에 독일 외교 관계의 중점에 있는 곳은 러시아였고, 가장 첨예한 이슈는 크림(Krym) 반도 지역의 독립에 얽힌 문제였다. 이 문제가 불거진 2014년은 대안당

5) “대안당이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기민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난민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합니다.”(여성 20-14세 그룹)

이 정당의 중심 이슈를 반 유로화에서 반 이주민·반 난민으로 정비하던 시기(최정애 2018)였다. 크림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으나,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크림 복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독일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발효시켰다. 무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러시아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시장 자본 접근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량이 급속도로 감소했다. 2013년 대러시아 독일 수출량이 3천5백8만 유로인데 비해, 제재 이후 2015년에는 2천1십7백만 유로 수준이었다.

계속되는 국가 간 불화와 급격히 냉랭해진 러시아-독일 외교 관계에 대해 각 정당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기민련 총수인 메르켈 총리는 상황에 따라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여전히 러시아 제재에 동의했다(Handelsblatt 2017). 기민·기사 연합과 연방정부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고 할 수 없었는데,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 한층 더 복잡한 문제에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민당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문제의 언급을 꺼렸다. 국제법과 러시아 외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당만큼은 러시아 제재 압박에 대한 종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안당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일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좀 더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⁶⁾. 러시아를 경제 및 안보 측면의 파트너로 과소평가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러시아계 이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논리였다. 대안당은 러시아인 네트워크(Russlanddeutsche für die AfD)를 통해 꾸준히 당 차원의 러시아 제재 해제 주장을 홍보했다.

이념적으로 극에 있는 좌파당이 귀환 이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도 짚어낼 수 있다. 좌파당은 '러시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크림 합병에 따른 제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Die Linke 2017, 12). 보수를 자처하는 귀환 이주민들이 좌파당을 새롭게 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2017년 총선에서 좌파당 지지율은 전체의 21%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언론들도 독일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반대 입장이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Grachtrup und Korf 2017).

끝으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귀환 이주민들이 많이 보는 라디오나 TV 등 상당한 수의 소매체가 러시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러시아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가 독일 내 러시아어 매체들을 통해 러시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내기도 한다는 점은 외부적 접촉요인으로서 러시아 정부, 내

6) 독일연방하원의원 게오르그 파츠데르스키 Georg Pazderski(AfD 당원)

부적 접촉 요인으로서 미디어의 정당 선호 연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귀환 이주민이 가장 많이 보는 인쇄 매체인 Argumenty i Fakti는 러시아에서 발행되어 독일로 들어오는 것이며, 그 밖에도 2016년 러시아어 단독 방송으로 설립된 RTVD(Russisches TV Deutschland), 예초 베를린 지역 신문이었으나 1997년부터 전국 단위의 미디어가 된 ReLine GmbH의 Russkaja Germanija(russisch Russkaja Германия)등이 러시아어를 베이스로 하고 러시아 자본이 들어간 대표적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귀환 이주민의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귀환 이주민들은 러시아와 독일의 관계, 푸틴의 영향, 새로 생겨나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 보수적 신념을 굳혀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복잡한 사회 현상은 중도 스펙트럼인 기민·기사 연합에 대한 지지율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세 가지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첫 번째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이전 (transfer) 요인이었다. 이주민의 세대가 변화하면서 정당 선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역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전 요인이 과거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독일에서 성장한 2세대들은 기민·기사 연합에 대해 1세대만큼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전 요인은 2세대의 낮아지는 정당 일체감을 충분히 답변해주지 못한다. 세대가 변화하면서 귀환 이주민들의 집단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차별화(differentiation) 요인은 오랫동안 귀환 이주민의 집단 정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었으나, 2017년 기민·기사 연합 지지율 급하락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편 폴 리사 사건으로 촉발된 귀환 이주민의 반 이주민, 반 무슬림 시위를 대안당이 정당의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에 사용하면서, 이 요인은 대안당 지지율 상승을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민·기사 연합 역시 대안당의 방법을 활용해 뒤늦게 지역별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는 대안당 네트워크가 훨씬 견고하고 활발하다. 특히 반 무슬림은 귀환 이주민 네트워크에서 대표적인 혐오 발언의 주제로 부상했다. 출신 국가에서 독일의 루터교 신앙을 지켜 폄박받았던 이들이 반 무슬림을 향해 극렬하게 벌이는 차별 언행과 시위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세 번째로, 귀환 이주민들이 기민·기사 연합의 대처 방식에 실망하는 사이에, 대안당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내·외부적 접촉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폴 리사 사건 이후 개인 SNS,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미디어에서 대안당의 새로운 관점을 환영했고, 귀환 이주민의 출신 국가 언어로 된 방송 매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온, 오프라인의 준거 집단이 활성화되고 그 중심에는 대안당의 러시아인 네트워크 같은 정당 중심의 네트워크도 자리 잡고 있다. 외부적 접촉 요인으로는 출신국·현지국의 관계에 대한 정당의 대응을 볼 수 있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사이, 대안당은 EU 및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 제재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는 귀환 이주민들의 2010년 중반 이후 정당 선호 양상의 변화가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이전 요인이나 차별화 요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접촉 요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밝혔다. 세대가 변화하고 이주민의 영향력이 커지며 이전 요인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고, 차별화 요인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본 논문의 연구 모델에 상응하도록 아래와 같이 <표 5>로 결론 내릴 수 있다.

<표 5> 귀환 이주민 정당 선호 요인 측정 기준 결과

이전		차별화		접촉	
세대간 의견 일치	x	차별 인식	△	내부접촉 (미디어, 준거집단)	○
세대별 국가·정당 연대성	△	차별에 대한 정당의 반응	○	외부접촉 (출신국가에 대한 정당입장)	○

마지막으로 귀환 이주민들이 독일인을 향해 가진 복잡한 내면과 모순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이들은 독일인들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하였고, 자신을 독일인으로 인정하는 대안당에 열렬히 환호했다. 다른 이주민 집단을 배제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차별화를 이용한 배제 전략을 기꺼이 취하고, 준거 집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이주민 사회통합이라는 난제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이들과 함께 할 사회를 구상해야 한다. 이주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주민과 현지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고상두. 2012. “이주민 통합 모델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6(2), 241-264.
- 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21(1), 119-154.
- 박채복. 2007. “독일의 이주민정책 : 사회적 통합과 배제의 딜레마”.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293-319.
- 전용주. 2017. “유권자 투표 행태의 변화”. 『현대사광장』 10, 42-61.
- 전용주·차채권·김은미. 2007. “정치 사회화와 정치성향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 정당학회보』 6(2), 97-131.
- 최정애. 2018. “독일 극우정당 부상 배경: 유로화, 이주민 요인을 중심으로”. 『OUTHOPHIA』 33(1), 39-67.

독문 및 영문 자료

- Baier, Dirk, Christian Pfeiffer, Susann Rabold, Julia Simonson and Cathleen Kappes. 2010. “Kinder und Jugendliche in Deutschland: Gewalterfahrungen, Integration, Medienkonsum”. *Forschungsbericht Nr. 109*. Kriminologisches Forschungsinstitut Niedersachsen.
- Bayerischer Rundfunk. 2017. “Die Verführbaren? - Russlanddeutsche vor der Wahl - BR Fernsehen”. *Bayerischer Rundfunk*, September 14.
- Berelson, Bernard,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ätte, Andreas, Simon Gehlhar, Jan Gehrmann, Andreas Niederberger, Julia Rakers, Eva Weiler. 2018. “Migrationspolitik im Bundestagswahlkampf 2017- Die Kluft zwischen Entscheidungs- und Darstellungspolitik”. Merctor Forum Migranten und Demokratie; Technischen Universität Dresden. *Policy paper* 2018-2, 363-387.
-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e Linke. 2017. “Wahlprogramm 2017”.
-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Knopf.

Farrell, David M. 1997. *Comparing Electoral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Focus. 2017. "Russlanddeutsche wenden sich von CDU ab - jetzt wirbt die AfD um sie". *Focus*, August 26.

Goerres, Achim, Spies Mayer, C. Dennis and J. Sabrina. 2018a. "Immigrant Voters against their Will? A Focus Group Analysis of Identities, Political Issues and Party Allegiances among German Resettlers during the 2017 Bundestag Election Campaig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_____ . 2018b. "How did Immigrant Voters Vote at the 2017 Bundestag Election?" First Results from the *Immigrant German Election Study*.

_____ . 2017. "The 'Most German' Voters? A Focus Group Analysis of Identities, Political Issues and Allegiances to the Right among Ethnic Germans from the Soviet Union before the 2017 Bundestag Election". Paper to be presented at the Council for European Studies Annual Conference in Glasgow, July 12-14.

Grachtrup, Bettina and Katja Korf. 2017. "CDU und AfD kämpfen um Russlanddeutsche". *Schwäbische Zeitung* September 6.

Handelsblatt. 2017. "Kanzlerin Merkel grundsätzlich für Aufhebung". *Handelsblatt*, September 8.

Frank, Fabian. 2011. *Soziale Netzwerke von (Spät-)Aussiedlern: eine Analyse sozialer Unterstützung aus sozialarbeiterischer Perspektive*. Freiburg: Centaurus.

Ireland, Patrick. 2000. "Die politische Partizipation der Einwanderer in Westeuropa: Die Macht der Institutionen." in *Europäische Politikwissenschaft: Ein Blick in die Werkstatt*, edited by Jan W. van Deth and Thomas König, 249-280. Frankfurt/New York: Campus.

Roppert, Manuela. 2017. "Die Verführbaren?: Russlanddeutsche vor der Wahl". *BR Fernsehen*, September 8.

Stricker, Gerd. 1997. *Deutsche Geschichte im Osten Europas: Russland*. München: SiedlerVerlag.

- Stribis, Oliver. 2014. "Migration Background and Voting Behavior in Switzerland: A Socio Psychological Explanation".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20(4), 612 - 631.
- Michon, Laure, Jean Tilie and Anja Von Heelsum. 2007. *Political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the Netherlands since 1986*. Institute for Migration and Ethnic Studies; Universiteit van Amsterdam.
- Vogelgesang, Waldemar. 2008. *Jugendliche Aussiedler. Zwischen Entwurzelung Ausgrenzung und Integration*. Weinheim und München: Juventa Verlag.
- Worbs, Susanne, Eva Bund, Martin Kohls and Christian Babka von Gostomsk. 2013. "*(Spät-)Aussiedler in Deutschland*".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Wüst, M. Andreas. 2004. "Naturalised citizens as voters: behaviour and impact". *German Politics* 13(2), 341-359.

인터넷 및 기타 자료

- Bundesverwaltungsamt(www.bva.bund.de) (2019/7/1 검색)
- Russlanddeutsch für die AfD NRW. <https://russlanddeutsche-afd.nrw> (2019/4/18 검색)
- "Landesnetzwerk Spätaussiedler und Heimkehrer gegründet". *CDU Baden-Württemberg*
<https://www.cdu-bw.de/presse/landesnetzwerk-spaetaussiedler-und-heimkehrer-gegruendet/>
(2020/5/20 검색)

Abstract

**The Party Preference of German Voters with
Migration Background
: Focus on the case of Aussiedler**

Jeong-ae Choi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In recent years, with increase of the number, immigrants integr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Germany. As of the second half of 2019, 9% of the total population of Germany, or 6.3 million, were immigrants from abroad. Further, as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f immigrants has come to center of german society, influence of migrants as voters is also growing. In this situation, the support rate to a party who deals strongly with migrants issues is continue to rise.

This research uses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ology based on anthropological study, which stresses party identification for interpretation on voting behavior. As a research case, im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ussiedler) who are often discussed for social integration of Germany were selected. This paper firstly argues the factors such as 'transfer', 'differentiation' which were importantly considered by the researchers are losing the influence. Then, we handle 'contact' factor which should be importantly considered for further studies. In short, this paper examines the party preferences of migrants, one of significant variables in German politics. This research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migrants studies, and give us an opportunity to think of coexistence with migrants in our society at the same time.

Key Words: German migrants, party preference, German politics, Aussiedler, party identification